

광주FC서 100경기 ... 이희균·하승운 “우리는 친구”

광주남초서 함께 축구 시작 ... 200번째 경기도 광주서 함께하고
이희균 “성장의 시즌, 다음 목표는 우승” ... 하승운 “더 발전하겠다”

잊지 못할 100경기를 만든 ‘친구’들이 200경기를 준비한다.

광주FC는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1 38라운드 최종전에서 구단의 새 역사를 작성했다. 이날 포항 골키퍼 황인재의 신들린 선방으로 아쉽게 최종전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4위 전북현대와 5위 인천유나이티드가 나란히 패배를 기록하면서 광주는 3위를 수성했다.

구단 역사상 최고 순위를 장식한 광주는 동시에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권도 따냈다. 광주의 새 역사가 만들어진 날,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하루를 보낸 이도 있다.

하승운은 이날 후반 시작과 함께 티모와 교체돼 그라운드에서 오르면서 시즌 마지막날 100경기 출장 기록을 만들었다.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한 차례 매서운 슈팅을 날리면서 유효슈팅을 만들었고, 위협적으로 포항 진영을 누비면서 경기장 분위기를 바꿨다.

아쉽게 활약이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하승운은 박수받는 경기를 한 뒤, 팀의 ‘아시아 무대’ 진출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다.

하승운만큼이나 이희균도 밝은 표정으로 ‘100경기’를 기뻐했다.

하승운에 앞서 37라운드 전북 원정에서 100경기 출장을 이룬 이희균은 이날 경기 전 100경기 출장 시상식을 가졌다. 그리고 자신에 이어 ‘초등학교 친구’ 하승운까지 연달아 100경기 기록을 세우면서 기쁨이 두 배가 됐다.

영등포공고-연세대에 활약한 하승운과 금호고-단국대를 거친 이희균이지만 두 사람의 축구 출발점은 광주남초로 같다.

경기가 끝난 뒤 “초등학교 친구”라면서 밝은 표정으로 이희균과 포즈를 취한 하승운은 “기분이 너무 좋다”고 활짝 웃었다.

많은 이들이 100경기 출장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두 선수에게는 그냥 100경기가 아니다.

광주에서 시작해서 광주에서 100경기를 모두 뒀던 급고 출신 유스 선수는 이희균이 처음이다. 2019년 프로 무대에 뛰어든 뒤 2020년에는 단 두 경기 출장에 그치면서 눈물 젖은 시즌을 보내기도 했던 그는 구단 유스 사상 첫 100경기 주인공이 되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

하승운도 고향에서 이룬 100경기라서 더 감격스럽다.

2019년 포항스틸러스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그는 전남드래곤즈와 FC안양을 거쳐 지난 시즌 광주로 왔다. 지난해 프로 입단 후 가장 많은 30경기에 나온 그는 올 시즌에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18경기 출장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마지막날 100번째 경기를 하면서 웃었다.

하승운은 “광주에 와서 100경기를 해서 뜻깊다. 솔직히 못 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됐다. 200경기도 광주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200번째 경기를 그렸다.

또 “골이 만들어지지 못한 게 아쉽다. 마무리가 내 속제인 것 같다. 더 발전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성장’으로 2023시즌을 이야기한 이희균은 ‘우승’을 다음 목표로 이야기했다.

이희균은 “성장의 시즌이었다. 이번 시즌 잘했다 다음 시즌 잘 한다는 보장은 없다. 안주하지 않고 경각심 갖고 동계훈련에 임해야 할 것 같다”며 “결정력이 고질적인 문제다. 그것만 잘 고치면 우리가 우승권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이 3위 했지만 사람이 욕심이 생긴다. 우승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ACL 무대가 아직 실감은 나지 않지만 겁 없이 덩비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희균은 “ACL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모르



광주FC의 이희균(오른쪽)에 이어 하승운이 연달아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우고 2023시즌을 마무리했다. 광주남초에서 함께 축구를 했던 두 친구가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시즌 최종전이 끝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니가 오히려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ACL이라고 다르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겠다. 좋은 선수들과

은 경쟁을 해보고 싶고, 그런 장면들이 생각난다. 우리도 선수층만 된다면 할 수 있다”고 큰 무대

를 앞둔 기대감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규성, 덴마크 무대 첫 멀티 골 ‘폭발’

7·8호골로 팀 5-1 대승 견인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이 덴마크 무대에서 첫 멀티 골을 넣어 소속팀 미트윌란의 역전승에 기여했다.

미트윌란은 5일 덴마크 헤르닝의 MCH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수페르리가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비보르에 5-1로 대승을 거뒀다.

조규성은 리그 3경기 만에 득점포를 신고했다. 조규성은 전반 추가 시간 동점 골, 후반 21분 팀의 네 번째 골을 넣어 팀의 승리에 앞장섰다.

리그 7, 8호 골을 몰아넣은 조규성은 덴마크 무대 진출한 이래 처음으로 멀티 골을 기록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조규성은 미트윌란이 0-1로 뒤지던 전반 추가 시간, 상대 골키퍼의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골대 정면으로 깔끔하게 쏘아 넣어 동점을 만들었다.

조규성은 내친김에 팀이 3-1로 앞서던 후반 21분 승기를 굳히는 쐐기골까지 터뜨렸다.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크리스토퍼 올슨의 패스를 받은 조규성은 오른발 누스톱 슈팅으로 반대쪽 골망을 흔들었다.

올 시즌 리그에서 8골을 넣은 조규성은 득점 3위에 올랐다. 리그 공동 득점 1위인 니콜라이 발리스, 알렉산데르 린드와는 2골 차다.

조규성은 2도움을 합쳐 올 시즌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도 달성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풋몹은 멀티 골을 기록한 조규성에 평점 9.1을 줬다. 양 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이다.

수비수 이한범은 교체 명단에 올랐으나 벤치를 지켰다.

승점 36을 쌓은 미트윌란은 2위 브린뷔(승점 34)에 승점 2차로 앞선 1위로 동계 휴식기에 들어갔다. 미트윌란은 내년 2월 브린뷔와 수페르리가 18라운드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리그를 재개한다.

미트윌란은 이날 비보르에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전반 추가 시간 조규성의 페널티킥을 포함해 두 골을 내리 넣고 역전까지 해냈다.

역습 상황이 펼쳐진 전반 30분, 비보르의 야콥 본데가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인사이



조규성

드 킥으로 골대 하단 구석을 찌르며 미트윌란이 먼저 실점했다.

조규성의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든 미트윌란은 전반 종료 직전 다리 오소리오의 원발 중거리 슈팅이 골대 하단 구석에 꽂히며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9분에는 미트윌란의 헨리크 달스고르가 문전에서 세컨드 볼을 오른발로 밀어 넣어 추가 골을 넣었다.

후반 21분 조규성의 쐐기골이 터진 가운데, 미트윌란은 후반 39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조규성의 헤더가 기점이 돼 다섯 번째 득점을 뽑았다.

문전으로 쇄도한 올라 브린힐드센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나온 공을 왼발로 제자 밀어 넣어 5-1을 대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PGA 투어 올해의 선수 스코티 셰플러·윤 램 ‘2파전’

신인왕 아베리 유력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022-2023 시즌 최고 선수를 가리는 올해의 선수와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신인을 뽑는 투표가 5일(한국시간) 시작됐다.

PGA투어는 올해의 선수 후보 5명을 이날 발표했다.

2022-2023 시즌에 15개 대회 이상 출전한 선수들은 이들 5명을 대상으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5일 오후 5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수상자는 내년 1월 5일 개막하는 2024년 시즌 첫 대회 센트리 때 발표한다.

올해의 선수 후보는 스코티 셰플러(미국), 윤 램(스페인),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윈덤 클라크(미국) 등이다. 올해의 선수는 셰플러와 램의 2파전으로 예상된다.

셰플러는 평균타수 1위, 상금랭킹 1위에 2차례 우승했다. 23경기에 나서서 17번이나 톱10에 진입해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다했다. 기복 없는 꾸준한 성적이 강점이다.

투표 직전에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것도 표심을 끌며 호재다. 그러나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게 약점이다. 램은 다승 1위(4승)에 마스터스를 제패했다.

메이저대회 우승이 없는 선수가 올해의 선수에 뽑힌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셰플러보다 램이 유리한 대목이다.

변수는 투표로 뽑는다는 점이다. 램이 최근 LIV



스코티 셰플러



윤 램

골프 이적설에 휩싸여 표심을 잃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우승을 차지한 호블란은 셰플러와 램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다.

2차례 우승과 평균타수 2위 등 뛰어난 성적을 냈지만, 매길로이도 올해의 선수에 뽑히기에는 미흡하다.

2승을 거둔 클라크는 US오픈 우승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오른 것에 만족해야 할 처지로 보인다.

신인왕 후보는 루드빅 아베리, 빈센트 노르만(이상 스웨덴), 에릭 콜(미국), 니코 에처바리아

(콜롬비아) 등 4명이다.

신인 가운데 유일하게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은 아베리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대학을 마치고 시즌 후반에 투어에 뛰어든 아베리는 11경기에 출전해 10번 킷 통과를 했고 4번 톱10에 입성했다. 올해 마지막 대회 RSM 클래식에서 우승했다.

골은 아베리가 우승하기 전까지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였다. 37경기에 출전해 7번 톱10에 진입했고 두 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다.

콜이 얼마나 표를 받을지가 신인왕 경쟁에 관전 포인트다. /연합뉴스

PGA와 LPGA 투어의 만남...남녀 혼성대회 개막

리디아 고 등 참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스타 선수들이 팀을 이뤄 경기하는 이색 골프 대회가 이번 주말 열린다.

현지시간 8일부터 사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부른 골프 클럽의 골드 코스(파72)에서는 그랜트 손턴 인비테이션이 골프 팬들을 찾아

간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PGA 투어 선수 16명, LPGA 투어 선수 16명이 2명씩 한 조를 이뤄 사흘간 총상금 400만 달러(약 52억2000만원)를 걸고 경기를 벌인다.

미국의 ‘인기 스타’ 리키 파울러는 렉시 톰프슨과 짝을 이뤘고, 호주 출신의 제이슨 데이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와 함께 경기한다.

스웨덴의 신예 루드빅 아베리는 같은 나라의 마들렌 사스트림과 파트너가 됐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릴리아 부(미국)는 조엘 데이먼(미국)과 같은 팀이다.

대회 첫날에는 스코렘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같은 조의 선수들은 각자 샷을 하고, 2개의 볼 중 하나만을 선택해 그 자리에서 다음 샷을 하는 방식이다. 둘째 날에는 볼 하나를 번갈아 치는 포섬 방식, 마지막 날에는 각자 티 샷을 한 뒤 두 번째 샷은 볼을 서로 바꿔 치는 변형된 포섬 방식으로 경기한다. /연합뉴스